



변동성 장세 끝에 하락 마감

외국인, 코스피 12거래일 연속 순매도
자동차, 증권, 조선주 강세

주요 지표 일간 변동

KOSPI	KOSDAQ	KOSPI200
8,051.33pt (-0.46%)	847.07pt (-2.46%)	1,293.13pt (-0.47%)
달러-원 환율	韓 10년물 국채 금리	S&P500 선물
1,533.20 원 (+3.2 원)	4.2030% (+0.6bp)	7,557.00pt (+0.38%)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주요 수급 동향

	KOSPI	KOSDAQ	KOSPI200 선물
개인	+26,806 억	+2,694 억	+1,273 억
외국인	-13,322 억	-409 억	-11,144 억
기관	-14,675 억	-2,269 억	+10,672 억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KEY DRIVER

- 금일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2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가는 가운데, 기관이 매도에 동참하면서 지수에 하락 압력을 가했습니다. 최근 뚜렷한 악재가 있기보다는 투자 심리와 수급 변화에 의한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날 KOSPI는 0.46%, KOSDAQ은 2.46% 내렸습니다. KOSPI 거래대금은 약 31.6조원, KOSDAQ은 약 6.1조원을 기록했습니다.(KRX 기준)
- 외국인은 KOSPI를 1.3조원 이상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KOSPI에서 유통과 IT서비스 업종을 매수했고, 전기/전자와 금융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기관도 KOSPI에서 1.4조원 이상 순매도했습니다. 기관은 금융과 증권 업종을 매수했고, 전기/전자와 화학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 업종별로 살펴보면, 호실적 전망으로 증권주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기아의 2분기 자동차 판매량이 호조를 기록하며 자동차주 전반이 상승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자 선정 기대감에 한화오션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AI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삼성전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반도체와 IT H/W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전력기기, 2차전지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 주요 종목 중에선 한화오션(+8.61%), 기아(+5.72%), NH투자증권(+5.41%)이 올랐고, 삼성전기(-8.09%), SK스퀘어(-5.92%), LSELECTRIC(-4.79%)이 내렸습니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